

# 80년 신군부 작성 계엄상황일지 5·18 핵심 내용 통째로 누락됐다

1980년 계엄사령부(신군부)가 작성한 계엄상황일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핵심 내용을 담은 페이지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꾸린 '80위원회', '511 분석반' 등이 5·18 자료 왜곡과 은폐를 자행한 증거라는 게 지역 5·18연구자들의 분석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최근 발간된 '5·18정책자료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제도정치 영역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5·18정책자료집은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자료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88년 활동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는 1980년 계엄작전 관련 군 자료 제출을 요구, 모두 79건 총 17만페이지 분량 자료를 건네받아 진상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포함된 '계엄상황일지'는 사실의 왜곡과 누락, 날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계엄상황일지는 신군부의 광주진압 일지나 다름없는 기록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다.

구체적으로 상황일지는 일일 결재 누락 등 기본적인 작성 체계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계엄상황일지에는 17일·18일·19일·20일·23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80위원회'·'511분석반' 등 전·노정권 왜곡·은폐 증거 1988년 국회 청문회 왜곡된 군 자료에 기대 조사 한계 전·노 정권 5·18 대응활동까지 진상규명 범위 넓혀야

### 기본 작성 체계조차 안 지킨 계엄상황일지

- 일일 결재 누락  
- 17·18·19·20·23일 상황장교~참모장까지 결재 빠져
- 일련번호 뒤섞이고 페이지 자체 없어  
- 20일 2369번 다음장 2670번으로 건너뛰어  
- 22일 2763번서 2674번, 23일 2705번서 2238번  
- 6일간 일련번호 19군데 누락~18~21일 집중

일의 일일 결재(지휘관 서명)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장교, 상황실장, 기획실장, 참모부장, 참모장' 순의 결재가 있어야 하지만 이 날짜는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작성된 계엄사령부의 작전 상황실 상황일지, 예하 부대인 2군 계엄 상황일지, 군사연구실 상황일지 등에는 결재가 돼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 최고 상급부대인 계엄사령부의 결재 누락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엄상황일지 일련번호가 뒤섞여

나 페이지 자체가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계엄상황일지는 '일련번호, 접수 시간, 송화자, 내용, 처리'라는 문서 작성·처리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일련번호 부여는 가장 기본적인 일지 작성의 출발점이다.

1980년 5월20일 2369번 상황일지의 다음 장은 2370번이 아닌 2670번이었다. 22일 2763번 다음 장은 2674번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 23일에는 2705번에서 2238번으로 번호가 바뀌었다.

또한 일지를 삭제하더라도 번호는

연속해서 써야함에도 5·18 기간에 해당하는 계엄상황일지의 경우 5월 18~21일, 23일, 25일 등 6일간 일련번호가 19군데 누락돼 있다. 특히 일련번호 누락이 속하게 발견된 5월 18일~21일은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집단 발포 등 5·18 진상규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계엄상황 일지를 왜곡한 주체는 전두환 정권이 비밀리에 만든 '80위원회'와 노태우 정부가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1988년 2월 꾸린 '511연구위원회', 보안사령부의 '511분석반' 등이 지목된다.

'80위원회'의 목표는 모든 5·18 자료를 모아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511연구위원회' 등은 5·18 관련 일지·쟁점사항 정리, 국방부 기본 입장 정리, 국정조사 대응책 검토 등이 임무였다.

김 교수는 "1988년 국회청문회 등에서는 광주시민들의 목격담·증언보다는 왜곡된 군 자료를 더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 조사의 한계였다. 당시 문서검증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군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 점도 아쉽다"며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5·18 대응 활동으로까지 진상규명 범위를 넓힌다면 총체적인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경찰청 출퇴근 버스, 정류장 덮쳐 할머니 부상

전남지방경찰청 출퇴근용 버스가 광주에서 버스정류장을 덮쳐 70대 노인이 다쳤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67)씨가 운전하는 전남경찰청 출퇴근 전세버스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고리고등학교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여·78)씨가 오른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무안 전남경찰청에서 출발해 일곡지구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버스에 전남청 직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정류장에도 일부 시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점과 버스가 서서히 정류장 인도폭을 향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박근혜 퇴진 현수막' 재판...전공노 6명 무죄 주장

광주서 정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와 구청 노조원들은 9일 "상소(常規)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시와 5개 구청 노조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광주시청은 물론 5개 구청에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은 상시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행정자치부에도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게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광주시청사와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정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조원들은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

## 공사현장 말뚝에 부딪쳐

### 광주서 40대 인부 사망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김모(48)씨가 지반다짐용 말뚝(길이 9m·직경 50cm·무게 1.9t)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낮 12시50분께 숨졌다.

김씨는 허리를 숙여 공사용 말뚝을 받침목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박모(57)씨가 중장비(메이러더)를 이용해 굴러준 또다른 말뚝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비가 5mm정도 내린 탓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 등을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경력 숙여 근로계약 취소

### 취소 전까지 임금은 줘야

근로자가 경력을 숙였다든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다더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만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의료 판매점 매니저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국집 오토바이 훔친 40대남 수리 맡겼다가 범행 들통



○...길가에 잠시 세워 놓은 중국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4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지는 바람에 수리를 맡겼다가 경찰에 들통.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35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49)씨가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100

만원 상당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자신이 거주하는 동구 계림동까지 몰고 갔다는 것.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김씨는 지난 8일 수리점을 찾았다가 탐문수사를 하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평소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어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 삼성전자 - 120만평
- ▶ LG전자 - 110만평
- ▶ 미군기지
- ▶ 평택 항
- ▶ 고덕신도시 520만평

☑ 총 7필 지 분양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

1필지(약 200평)  
★ 평당 200만 →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 경매교육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아파트 추천

- ① 광산구 신가동 대방노블랜드 (33평) 감평가 3억7백 → 최저가 2억1,500만
- ② 북구 운암동 나산아파트 (24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6백
- ③ 광산구 정덕동 수완자이 (47평) 감평가 4억2,300만 → 최저가 2억9,600만

[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평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
- 2)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평가 11억 → 최저가 3억6천
- 3) 남구 봉선동 (상가건물) 감평가 47억 → 최저가 47억
- 4) 광산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감평가 22억 → 최저가 22억
- 5)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히딩크호텔 감평가 88억 → 최저가 62억
-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7)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600만
- 8) 광산구 비아동 (주유소) 토지 546평 건물 178평 감평가 18억8천 → 최저가 18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평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
- 11) 북구신안동 (모텔)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12) 장성 북일면 (요양병원)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A.P.T · 주택 · 공장 등

- ① 서구 화정동 (주택) 토지 58평 건물 47평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6천5백
- ③ 서구 마북동 (주택) 토지 67평 건물 29평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1억3천
- ④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05평 건물 1,201평 감평가 39억 → 최저가 17억6천
- ⑤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15층 중 13층 (60평) 감평가 5억8백 → 최저가 3억6천
- ⑦ 서구 용암동 한신아파트 15층 중 1층 (24평)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8천9백

010-6670-9800    010-7384-7800